

## “사회 약자·미래세대 희망의 길벗 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 기자회견  
종단 사회노동위·화쟁위 통해  
불국정도 향한 사회참여 확대  
수행자 꿈꾸는 은퇴자 특수출가  
총본산성역화 등 주요사업 소개

‘희망의 길벗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병신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종단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 실업문제와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갈길이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불교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참회하며 지혜와 자비심으로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꿈과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운 조계종은 올해 사회참여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화쟁적 관점으로 사회 해법을 모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천명한 종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단은 노동위원회와 화쟁위원회를 통해 불국정도 건설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기존 노동위원회는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하고 1월 중 실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정각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깨달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힘써 걸으며 법문을 펼치셨던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밝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다. 또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왔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노동문제 해법 모색에도 나선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결사의 정신을 놓지 않고 화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활동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며 “우리 종단은 청년세대,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갖고 활동해온 사람들 중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은퇴 후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 특수출가 제도’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일정자격과 전형을 거쳐 출가한 뒤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종단은 ‘은퇴 특수출가’와 관련해 오는 11월 중앙총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 공존과 상생·합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불교교류, 저출산·고령화 극복 및 생명존중 확산, 햇빛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밝혔다. 부처님 사상에 근거해 입양, 낙태 등의 문제들을 교육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정비도 시작한다. 고령화 문제의 경우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 자신이 먼저 세상을 향한 연꽃이 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마음을 나누는 빗돌과 함께 손잡으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없다”면서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관련기사 3면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불기2560년 봉축표어 공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5월14일)을 기념하는 봉축 표어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표어주제는 불법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거나 계층간 화합과 관용, 청년 미래세대의 희망 구현,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하며, 10자 내외여야 한다.

표어는 1인당 최대 2개씩 응모가능하며 이메일(hong@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5-6643)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에는 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올해 중요유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5월6일부터 14일까지 봉은사와 청계천, 조계사 앞 우정공원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7일 오후7시부터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을 한다. 이튿날에는 조계사 앞 우정공로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 등을 진행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 기도

신년 벽두에 미안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안마를 가는 일이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미안마는 내 마음 속의 서정이기 때문입니다. 미안마의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미움도 경쟁도 분노도 모두 노을빛처럼 순하게 사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윤회를 굳게 믿는 미안마 사람들의 기도의 마음이 미안마 전역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카찬타 사원에서 만난 가난한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미안마의 어떤 성지보다도

감동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그 모습이 그토록 성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여인의 자태가 깊은 신심과 아름다운 진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자, 영원한 시간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원의 오후의 별은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진관사 스님이 내게 적어준 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원수는 나의 스승, 용서는 나의 수행, 칭찬은 나의 기도, 친절은 나의 서원.” 사원의 언덕에서 서서 나는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읊조렸습니다. 내 마음 속에 찬찬히 빛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수행의 모든 답이 이 기도문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행자였으나 수행자 아닌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치부처럼 드러났

습니다. 사원의 고운 햇살 아래서 내 삶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스러운 기도문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마음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 모든 것을 감싸는 안는 일입니다. 분노와 비방을 넘어 이해와 칭찬을 내보이는 마음의 언어를 내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를 기쁜 마음으로 패배하게 하고 승리는 그들에게 주소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질 때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로카찬타 사원의 언덕을 거닐며 나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문이 햇살처럼 내 마음에 반짝이며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해 나는 내게 약속 하나를 건넵니다. 내 남은 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남해 염불암



##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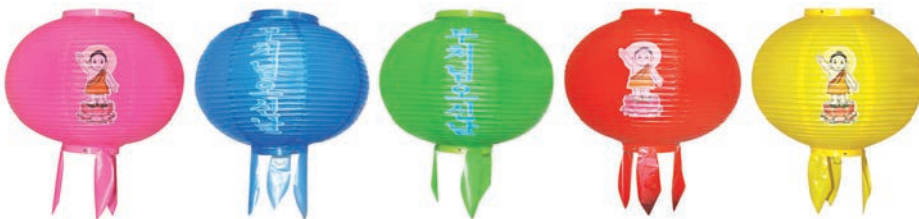
자동 연등승강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